

오리온 최고경영진 IR 후기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Comment

7~8월 매출액 감소폭은 완화(10~15% 감소 예상). 3~4분기 점진적인 회복. 본격적인 회복은 18년으로 전망. 제과사업의 수익성 강화 정책과 신규사업(음료, 식품, 건기식 등)의 강한 의지 확인

제과사업

중국: 상반기는 사드 영향으로 셀인/셀아웃 매출액 괴리가 있었음. 셀인 38% 감소, 셀아웃 8% 감소M/S 하락은 2~3%p에 그침. 셀인/셀아웃 차이는 도매상이 보유한 재고처리 과정에서 발생. 7월~8월 매출액은 10~15% 감소,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중국 사업의 구조조정의 계기로도 작용해 경영진 교체 및 비용 절감 작업 진행 중. 전통적인 TT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통 TT 채널과 남부지역을 신시장으로 판단, 브랜드 파워 기반으로 개척할 계획

한국: 상반기는 매출액 3~4% 성장. 하반기는 7~8% 성장 예상. 17년은 고복잡이 매출 성장에 기여함. 17년말 고복잡 1개 라인 추가 증설로 18년은 고복잡 2개 라인 가동 예상. 17년은 지난 4~5년간 매출 및 영업이익 역신장에서 탈피하는 흐름 예상

베트남: 기대치를 상회하는 매출 호조세.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 20% 성장. 스낵 제품이 성장이 두드러짐. 향후에는 제빵, 월병 등 제과 외 영역으로 확대 전략 예상

러시아: 16년 초코파이와 초코송이의 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판가 정상화로 매출액 600억원, 영업이익 80억원 기록하며 턴어라운드. 17년에도 영업이익 고성장이 이어지며 신공장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전망. 18년은 초코파이 라인 증설이 매출액 성장 이끌 전망

신규사업

음료: 생수시장은 국내 8,500억원, 중국 30조원 시장. 중국의 영업사원 7천명, 1만명의 경소상 영업망을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국내와 중국에서의 생수 판매를 목표로 함. 초기투자는 1,500억원~2,000억원 규모. 사업 성과를 확인하며 추가 투자 예상. 장기적인 목표는 중국 시장 매출액 1조원

식품: 농협JV를 통해 곡물 기반의 그레놀라 생산 예상. 기존의 옥수수 베이스 시리얼 시장 대체를 예상. 일본에서는 가루비가 그레놀라 시장 진출로 저성장 국면을 탈피, 두 자리 수 성장을 이어간 사례가 있음

건기식: 로빈스파마 사의 독점판매권 확보. 동사의 중국 판매망을 높게 평가한 결과. 닥터유 브랜드를 활용 국내는 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매전략 예상. 2차적으로는 중국 판매를 계획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9월 1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정조정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1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9월 1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